

# 광주 혁신주체들 “역량 결집 새 산업지도 그리자”

## 지자체·산업·대학·연구기관 등 200여명 신년인사… 광주 미래비전 공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2026 지산학연 거버넌스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지역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 주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산학연 거버넌스는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안·정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했다. 업종별 11개 분과협의회와 총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데이터산업 등 각 분야 혁신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졌다.

특히 행사장에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광주시 산업 육성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혁신 주체들은 “이번 신년인사회가 통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거버넌스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뜻을 모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2026 지산학연 거버넌스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의 산업이 넓어지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가 생길 수 있

도록 지산학연 각 주체가 가진 역량을 하나로 집결해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겠다”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반도체와 문화로

활짝 꽃피는 부강한 광주전남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승원 기자

### 북구, 주민 참여 구정 홍보단 ‘부끄러이에이터’ 모집

내달 11일까지 올해 활동할 대본 작가·연기자·댄스팀 모집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주민이 직접 북구의 소식을 전하는 ‘부끄러이에이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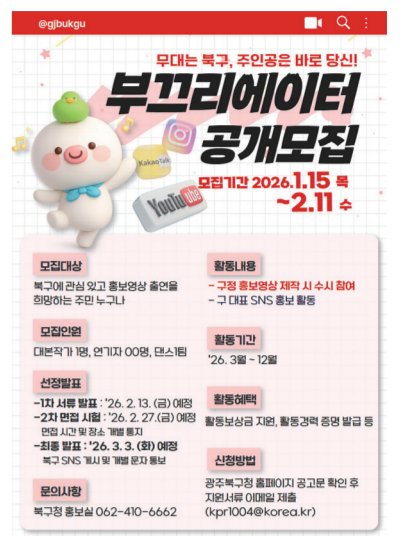
‘부끄러이에이터’는 북구와 크리에이터가 더해진 단어로 구정 주요 정책을 주민의 시선에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북구에서 운영 중인 주민 참여형 홍보단이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부끄러이에이터는 쇼트드라마와 댄스 영상 등 총 18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렸다.

작년 활동 결과 구 SNS 단일 게시물 기준 최대 조회수인 29만 회를 달성하고 주민 만족도 88.6%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대본작가 ▲연기자 ▲댄스팀 등 3개 분야에 재능 있는 주민을 모집한다.

서류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만 14세 이상이면서 광주에 거



주하거나 광주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주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접수가 마무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 서구 소상공인 94.1% “매출 늘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84.7% “서구 상권 중심 소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정책이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서 뚜렷한 제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904명과 소상공인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이용 설문조사’ 결과, 정책 인지도는 시민 94.5%, 상인 98.0%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이는 정책 인식 기반이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 제감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도입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상인은 94.1%에 달했으며, 이 중 응답자 절반(55.3%)이 10% 이상 증가로 안정적인 매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1.3%로 과반을 넘겼다. 정책 전반 만족도는 68.4%로 조사됐다.

지역 내 소비 환류 효과도 뚜렷하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46.0%가 “서구 상권에서만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38.7%는 “서구 상권 중심으로 사용한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84.7%가 서구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생활 소비 구조를 정착시키는 효과로 해석된다.

시민 체감 지표도 긍정적이다. “1년 전보다 골목상권이 활발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였으며, 서구 상권 전반 만족도는 72.7%. 향후 서구 상권 이용 의향이 88.5%로 나타나 중장기적인 소비 유지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박석우 기자

## 남구, 지역안전지수 평가 ‘4연속 광주 1위’

### 행안부 2025년 평가, 올해도 자치구 선두 기록

근 행안부는 지난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의 안전지수 평균 등급은 2.3점으로 나타났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며,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

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1위를 차지했다.

높은 수준의 안전지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감염병과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됐는데, 구청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부분이 주요했다.

이밖에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을 비롯해 시민 참여형 재난안전 한국훈련 실시, 방범용 CCTV·안심 택배 보관함 설치, 1인 가구 호신용 물품 지급,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등 특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임채일 기자

## 전남도, 여순사건 위령사업 전담팀 신설

### 위령·기념사업 전반…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사업도 총괄

전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령사업 전담팀을 19일 신설했다.

위령사업팀은 여순사건 관련 위령과 기념사업 전반을 전담하고, 국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을 집중 담당한다.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유족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했고, 도비 6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치유상담과 심리

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 치료와 신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위령사업팀을 중심으로 유족을 위한 위령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추모공원 조성, 재단 설립,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속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동구, 최대 5% 할인 혜택… 스마트 위택스 등 납부 가능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 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특히 1월 중 납부할 경우 가장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 신청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광주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방법이 다양하다.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화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은 물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이전해 등록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오철수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관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도 행정통합의 추이를 지켜보며 후보 단일화 여부나 선거 전략 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예비후보군이 시·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통합단체장 선거가 확정되는 시점, 즉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공표되면 각 예비후보들이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얼굴 알리기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시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전광춘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